

아르네 야콥슨(Arne Jacobsen)의 가구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우^{*1} · 한민정^{*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ne Jacobsen's Furniture Design

Jin-Woo Kim^{*1} · Min-Jung Han^{*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rne Jacobsen's chair design. He was one of the few creators who inscribed his name in both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His works reflected a form of "Regional Modernism" in which traditional techniques collide with functionalist beliefs. This grafting of ideas generated a person aesthetics which he used to establish a suitability of scale, detail an program for each design. In the material aspect, he had enjoyed using the plasticity of the plywood, polyurethane, tubular steel and in the formative aspect, organic form is combined with minimalization of material and simplicity. To sum up what is unique about Arne Jacobsen's chair design, it is that it is distinguished by a clear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beauty from natur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used and the melding of traditional and functional techniques to generate organic form.

*1 Dep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 ik Univ, Seoul, 121-791, Korea

*2 Dept. of Interior design, Changwon College, Changwon-shi. 641-701, Korea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세기 초반의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가구들은 기계에 의한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과거의 양식과 상징으로부터 탈피하여 기능성과 단순미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집약되어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현대 디자인의 움직임은 가구 디자인에서도 현대적인 감각에 의해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새로운 기술과 신소재의 개발과 함께 조형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확산되어 디자인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많은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적합한 총체적 양식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자신들의 디자인을 정립하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디자인이 대중 개인의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추구는 기하학적인 것과 유기체적 추상의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 디자인 방법을 추구한 디자이너들은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미스 반데 로헤(Mies van der Rohe),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등이며 두 번째는 알바 알토(Alvar Aalto), 아네 야콥슨(Arne Jacobsen)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덴마크의 아네 야콥슨(Arne Jacobsen: 1902~1971)은 자연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유기체적 형태추구와 명확한 재료사용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독특한 "데니쉬 모던(Danish Modern)"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덴마크의 가장 중요한 수출상품으로 양산되어 전 세계에 덴마크의 가구를 알리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아네 야콥슨의 인지도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그 영향력에 비하여 그리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유럽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덴마크 특유의 디자인

철학과 끝없는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 양상을 창조했던 아네 야콥슨의 사상과 작품분석을 통한 그의 가구 디자인의 특성과 주요작품의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사상과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계속 될 것이며 향후 이를 통한 심도 있는 북유럽 디자인의 분석과 경향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아네 야콥슨의 작품분석을 위한 범위는 그가 가장 왕성한 가구 디자인 활동을 한 시기인 1950~60년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지금까지 양산되고 있으며 그에게 국제적 가구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게 하였던 50년대의 앤트 의자(the Ant Chair), 세븐 의자(the Seven Chair), 스완의자(the Swan Chair)와 에그 의자(the Egg Chair), 그리고 60년대의 옥스퍼드 의자(the Oxford Chair)까지로 하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네 야콥슨의 성장 배경과 주요활동, 그리고 덴마크의 현대 가구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독특한 디자인 양식을 정립하게 된 배경을 파악한다.

둘째, 아네 야콥슨이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였던 까닭에 대부분 그가 디자인했던 가구가 그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주로 의자를 디자인했던 점에 착안하여 그의 가구 디자인 작품을 그 건축물과 연관하여 의자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아네 야콥슨의 주요 작품분석에 따른 그의 의자 디자인 특성을 문화적 특성, 재료의 특성, 형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분석한다.

2. 아네 야콥슨의 활동과 디자인 배경

2.1 아네 야콥슨의 성장배경과 주요활동

아네 야콥슨은 건축과 디자인, 이 두 분야에서 모두 그의 이름을 각인 시킨 몇 안 되는 디자이너

너 중 한사람으로 190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¹⁾. 그는 덴마크의 왕립 미술학교(Royal Academy of Fine Art)에서 건축을 공부하였고 졸업 직후인 1927년부터 1930년까지는 덴마크의 건축가 폴 홀세(Paul Holseo)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게 된다.²⁾ 그리고 마침내 1930년에 자신의 디자인 사무실을 설립하여 1971년 그가 타계할 때까지 건축가, 실내 디자이너, 가구·직물·세라믹 디자이너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56년부터 1965년까지는 모교에서 교수로서 디자인 교육에 힘쓰기도 하였는데 그의 디자인 철학은 지금까지도 강한 영향으로 남아있다.

그가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1925년에 파리에서 열린 국제 장식미술박람회(Exposition Intenationale des Arts Decoratifs)에 그 자신이 디자인한 의자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 은메달(Silver medal)을 수상하게 되고 졸업 후인 1928년에는 마침내 금메달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건축가로서의 첫 성공은 1929년 미래주택(The House of the Future) 공모전에서 그의 동료 플레밍 라센(Flemming Lassen)과 함께 공동의 작품으로 우승함으로써 이루어졌다³⁾. 이 미래주택안은 아네 야콥슨이 파리 여행을 통해 얻은 꼬르뷔제의 파빌리온에 대한 감명과 베를린의 합리주의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덴마크에 현대건축을 최초로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0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박람회를 통하여 그의 현대 주택이 역시 그가 디자인한 실내장식, 색채, 가구, 직물들을 포함하여 전시, 소개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그가 건축가와 디자이너로서 강한 인상으로 자리 매김 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건축가 레이와 찰

스 임즈(Ray & Charles Eames)가 의자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증기를 이용한 합판성형의 실험⁴⁾을 시작하였었고 덴마크에서도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가구회사⁵⁾에서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실험하는 단계에 있었다. 1951년에 마침내 아네 야콥슨이 합판 성형기술을 이용하여 의자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⁶⁾ 의료기구회사인 노보의 캔틴(Canteen)에 어울릴 새로운 의자를 디자인하여 그 작업을 프리츠 한센 회사에 의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앤트 의자이다. 아네 야콥슨은 이 앤트 의자로 하여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며 지나친 모더니즘으로부터 덴마크의 가구 전통과 기술을 구별시키게 된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양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1955년에는 앤트 의자의 성공에 힘입어 종종 세븐 의자라고 불리는 모델 No.3107의 의자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 세븐 의자는 덴마크 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공으로 평가되어지며 1957년에는 이 의자인 변형 시리즈인 모델 No.4130의 의자로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에서 그랑프리(Grand Prix)를 수상하게 되어진다.

1956년에서 1961년까지의 기간동안 아네 야콥슨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로얄 호텔(The Royal Hotel)이 건축되었다. 아네 야콥슨은 이 호텔을 장식하기 위해 가구, 램프, 직물류와 테이블웨어(tableware), 도어핸들(door handle)까지 디자인하였

1) Poul Erick Tojner & Kjeld Vindum, Arne Jacobsen : Architect & Designer, Danish Design Center, Copenhagen, 1998, p6
 2) 그 당시에 벌써 그의 프로젝트는 바우하우스와 기능주의에 대한 강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3) Poul Erick Tojner & Kjeld Vindum, 앞의 책이 미래주택을 위해서 아네 야콥슨은 그의 첫 현대 디자인 의자인 베스킷 의자(basket chair)를 디자인하였는데 둥근 형태의 기하학적인 미래주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반원형의 팔걸이가 달려있는 의자였다. 후에 이 곡선은 더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운 형태로 그의 의자에 적용되었다.

4) 이 실험은 항공산업에서 개발시킨 기술에 의해 합판을 두 방향으로 성형하는 것이었다. 이 후에 이 실험의 결과로 임즈 의자(The Eames Chair)로 불리는 등받이와 좌판이 각각 이중의 곡선으로 성형되는 셸과 금속관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의자가 완성되어진다.
 5) 캐비닛 메이커(Cabinet maker)였던 프리츠 한센에 의해 1872년에 시작된 이래 4대에 걸쳐서 한센 가족에 의해 계승되어오는 가구회사로 아네 야콥슨과는 1930년대 초에 처음으로 함께 작업함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초기에 이미 토네트(Thonet)의 비엔나 의자의 영향으로 그 당시 비밀에 부쳐져 있던 스팀을 이용한 벤트우드(bentwood) 기법을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완성시켰다.
 6) 간단한 스케치로 프리츠 한센 회사에 의뢰되었던 이 앤트 의자는 등받이와 좌판이 한 피스(piece)로 성형되기 위해 임즈 의자보다도 한층 더 진보된 이중 곡면 성형기술이 필요했다.

는데 그때 디자인한 의자 중에서 스완 의자(the Swan Chair)와 에그 의자(the Egg Chair)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의자들은 앤트 의자, 세븐 의자와 더불어 50년대에 아느 야콥슨이 발전시킨 독특한 스타일로 평가되었다.

1965년에는 옥스퍼드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대학을 위해 옥스퍼드 의자를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높은 등받이를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아느 야콥슨의 의자로 호평받았다. 그 후에 그는 그의 디자인에 원통모양의 모듈을 체계적으로 응용하여 실린더 라인(Cylinder-Line)이라는 테이블웨어의 시리즈를 디자인하였다. 이 실린더 라인은 가정용품 시장에 그의 이론을 적용시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시리즈로 대표되어지며 그의 디자인 영역은 주방기구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2.2 덴마크의 현대 가구 디자인의 배경

(1) 초기 가구연맹의 활동

20세기 초기의 덴마크 가구는 여전히 유럽의 나라들, 특히 프랑스나 영국의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주로 상류계층을 위해 생산되어지고 있었다.⁷⁾ 그러나 점차로 세련된 신고전 양식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단지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장인의 기술과 가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1777년에 설립된 왕립가구연합(Royal Furniture Trading Association)과 1554년에 설립된 코펜하겐 가구산업 협동조합(Copenhagen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 Association)의 역할이 있었다. 왕립가구연합은 전통적 형태와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로젠베르그(G. E. Rosenberg)와 앙커(C. Anker)⁸⁾를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을 많이 주었기에 초기의 덴마크 가구 디자인은 외국의 양식에 의해 주도되었다. 코펜하겐 가구산업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팔 수 있는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역시 기술

7) Takako Murakami, The Backfround of Modern Danish Furniture Design, Danish Chairs, 2nd ed., Korinsa press & Co., Ltd, Kyoto, 1996, p12

8) 로젠베르그는 왕립가구연합의 초대 회장이로서 프랑스의 건축가 N. H Jardine의 제자였던 까닭에 덴마크에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주었고 그의 후계자인 앙커는 강한 영국풍의 영향을 남겼다.

과 제품의 질적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후에 덴마크 가구 디자인 단체의 원형이 된다.⁹⁾

(2) 스칸디나비아에서의 현대 디자인 배경

1920년대에 들어와서 젊은 혁신적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유럽 전역에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값진 실험들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말의 러스킨(John Ruskin)과 모리스(William Morris)의 예술과 공예운동(Arts and Craft Movement)이 산업혁명동안 잃어 버렸던 공예 기술의 질적 향상과 미적 감각을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그 외의 유럽에서도 여러 운동이 일어났다. 1907년 뮌헨에서 형성된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과 1915년 프랑스에서 “큐비즘 이후의 것들(Things after Cubism)”을 출간한 르 꼬르뷔제의 에스푸리 누보(Esprit Nouveau)가 그것이다. 그리고 네델란드에서는 반되스부르그(Theo Van Doesburg)와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전위 예술잡지 데 스틸(De Stijl)을 창간하였는데 추상예술과 디자인 운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1919년에는 독일의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바우하우스(Bauhaus)가 창설되었는데 그의 미니멀적 개념은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에 의해 나타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그 반응은 특히 스웨덴에서 활발했다. 그리거 폴슨(Greger Paulsson)¹⁰⁾은 1920~30년대에 북유럽에 일어났던 건축과 공예 디자인의 중심적 리더자였으며 기능주의 이론가였다. 1919년 스웨덴 공예 연구소(Swedish Craft Institute)에서 디자인 운동의 모토로 사용되어진 “일상을 위한 더 나은 상품(better goods for daily life)”은 곧 다른

9) Takako Murakami, 앞의 책, p13

10) 폴슨의 디자인 이론은 사회심리학적인 것이었으며 디자이너는 아름다움과 실용성과 함께 소비자에게 있어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디자이너는 다음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①아름다운 형태의 창조(미적요소) ②실용적인 제품(실리적 요소) ③소비자 교육(사회적 요소) 1956년에는 그의 아들 닐(Niels)과 함께 “The Form of a thing and It's Use”라는 책을 써서 그의 미학적 기능주의 이론을 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도 퍼져 나갔다. 그가 주축이 된 1930년대의 스톡홀름 박람회(the Stockholm Exposition)는 북유럽에서의 기능주의의 시작으로 말하여진다. 게다가 전시빌딩계획 담당 건축가인 에스프룬드(E. Gunner Asplund)는 국제적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건축을 창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젊은 덴마크 디자이너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일찍이 그로피우스와 꼬르뷔제에 의해 제안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 양식의 개념이 이 박람회를 통해 북유럽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덴마크에서의 기능주의의 형태는 덴마크 사회의 특별한 필요와 관계되었고 덴마크 디자이너들은 바우하우스와는 또 다른 기능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3) 덴마크의 현대 디자인 배경

덴마크에서 일어난 현대 디자인 운동은 여러 줄기로 구성되어진다. 전위 저널 크리티시즘(Criticism)¹¹⁾을 출간한 건축가들은 그 당시 예술적 철학뿐 아니라 사회적 철학을 보여 주었다. 이 저널은 건축과 여러 분야의 디자인, 공예제품에 대한 비평을 실었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디자이너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

1924년에 설립된 왕립 미술학교의 건축학부의 가구 디자인 전공의 교수인 클린트(Kaare Klint) 또한 20세기 덴마크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학교의 교과과정도 클린트의 개인적 디자인 교육철학에 의해 전개하였으며 특히, 덴마크 가구 디자인을 위한 높은 표준을 설정하였고 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서 강하게 남아 있다. 그의 교육은 이론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개념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인체의 스케일과 가구의 스케일에 대해 이해하게 하였으며 인체의 치수와 운동을 가구 디자인에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

인 것이었으며 1948년 꼬르뷔제가 “모듈러(Modular)”를 말한 때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클린트의 학생들은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 가구 디자이너들이 되었고 그들의 디자인은 국제적 인식을 얻게 되었으며 “데니쉬 모던(Danish Modern)”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덴마크의 가구가 높은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는데 도움을 준 또 하나는 가구 산업연합의 전시회(The annual exhibition of the Furniture Industry Association)이다. 이 전시회는 1927년부터 1966년까지 38년동안 매 해 개최되었으며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알리는 디자인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27년 가구 제작자인 워츠(Henrik Worts)는 낮은 비용의 거실 가구를 참나무로 만들어 전시하였는데 특히 일반 대중에게 크게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디자인에 의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전시회가 해마다 열리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또한 가구 디자이너들과 작업장을 가진 가구 제작자들에게 공동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디자이너와 가구 제작자들의 오랜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1932년 전시회에서는 아스 야콥슨도 가구제작자와 공동으로 전시하였으며 40여년 동안 230여명의 디자이너와 90여명의 가구 제작자가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러한 공동작업의 관계는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덴마크를 국제적 가구 시장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했다. 가구산업 연합전시회는 덴마크 현대 가구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더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 전시회를 통해 세계는 20세기 덴마크 가구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만든 디자이너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11) 편집장이었던 폴 헨닝슨(Paul Henningsen)은 일상생활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삶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이것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Criticism은 1928년에 절판되었으나 초기 덴마크 기능주의 형성에 큰 몫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젊은 디자이너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더 나은 삶을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3. 아스 야콥슨의 주요 건축물과 가구

초기의 아스 야콥슨의 건축성향은 국제주의 양식의 정형을 따랐으나 지역적 재료의 질감이

돋보이는 개인적 성향의 모더니즘이었다.¹²⁾ 그 후 5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건축 언어는 일관된 기하학적 형태의 간결한 미니멀리즘의 성향을 나타내면서 지역성이 돋보였던 건축재료는 금속, 유리, 알루미늄 등으로 교체되어 나갔다.

그가 디자인한 가구는 그의 건축물과 그 실내 공간을 위해 디자인되었는데 직선적이며 절제된 공간 속에서 대조를 이루는 특징적 색채의 유기적 조형물로서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3.1 노보 회사와(1934)와 앤트 의자

이 건축물은 증축공사로서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새로운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었다. 두 건축물은 도로의 코너에서 만나게 되어있어 파사드가 연결되는 곳은 7자로 꺾여진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곳에 커다란 초목이 자라게 하여 건축물의 형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려하는 섬세함을 보였다. 일단 코너를 돌아 신 건물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건물 외관으로부터 주변을 이루고 있는 신도시의 이미지를 수용하려는 변화가 연출되어 있다. 즉 이 코너는 마치 시대를 넘어가는 전환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노보회사의 캔틴을 위해 디자인되었던 앤트 의자는 곡목 성형기술의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 완성되어 양산에 성공한 아노 야콥슨의 최초의 의자로서 등받이와 좌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형합판으로 이루어진 몸체 부분을 3개의 다리로 지지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좌판 밑 중앙에서 한번의 접합에 의해 연결된다. 의자의 몸체가 가져야 할 견고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등받이의 허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었으며 개미라는 뜻의 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3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앤트만이 양산되었으나 이후 4개의 다리가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아노 야콥슨의 사망 후에는 4개 짜리 만이 양산되고 있다. 아노 야콥슨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다리 3개 짜리 앤트 의자에 크게 애착을 가졌다고 전

해지고 있는데 이는 첫째, 다리 3개만으로도 구조적으로 충분히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으며 둘째, 의자가 가지는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람이 앉으므로 인하여 의자의 좌판에 힘이 실릴 때 가장 많은 지지를 필요로 하는 등받이와 좌판이 만나는 부분은 두개의 다리의 지지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좌판의 앞부분을 지지하는 곳은 하나의 다리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좌판의 앞부분은 사람이 일어날 때 사람의 다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 이상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원탁에 앉을 경우 다리 3개의 앤트는 4개의 앤트 보다 더욱 많은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리가 3개 짜리 앤트 의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구조적인 불안함을 느꼈고 결국은 양산이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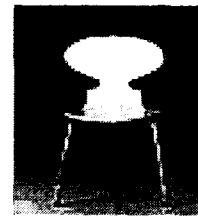


사진 1. 앤트 의자

3.2 로도르브 시청(1954-1956)과 세븐 의자

이 시청 건물은 크게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무공간이 있는 3층 짜리 건물이고 나머지 하나는 회의실과 의원실이 있는 1층 짜리 건물이다. 건물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 동선을 이루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둥은 프리캐스트(precast, 건물의 부재나 부분을 미리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된 콘크리트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은 파사드와 조화를 이루며 커튼월로 마감되었고 실내 공간은 조각품과도 같은 계단실에 의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건물을 위해 아노 야콥슨은 흔히 세븐 의자라 불리우는 모델 No.3107의자를 디자인하였다.

12) Poul Erick Tojner & Kjeld Vindum, 앞의 책, p13

엔트와 마찬가지로 쌓을 수 있는 의자이며 엔트보다 약간 더 큰 몸체와 4개의 다리로 되어있어 구조적으로 튼튼하며 기능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초기에는 너도밤나무나 티크의 합판에 블랙과 화이트의 래커마감으로 된 세븐 의자가 양산되었으나 차츰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벗나무의 합판과 다양한 칼라 래커의 마감으로 생산되고 있고 팔걸이를 비롯한 다양한 악세사리로 변화를 준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사진 2. 세븐 의자

3.3 로얄 호텔(1956-1961)과 스완, 에그 의자

SAS호텔이라고도 불리는 로얄호텔은 아네 야콥슨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에서 S.O.M(Skimore, Owing, and Merrill)이 디자인한 뉴욕의 레버 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은 2가지의 확실하고도 차별화된 요소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는데 서비스의 기능을 가진 로비나 식당, 바, 회의실, 여행사는 모두 호텔의 저층에 배치하여 가로로 넓은 사각형의 형태를 형성하였고 그 위에 수직으로 높게 올라간 직육면체에는 객실을 배치하였다. 이 건물의 기능상 가질 수밖에 없는 수직적인 볼륨은 저층 부분의 수평적인 볼륨과 조화를 이루며 강조되고 있다. 파사드를 포함한 외벽의 마감재는 구름의 반사를 유도하기 위한 색상의 유리를 선택하였고 전체적인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가구를 포함한 모든 실내 요소 즉, 조명, 커튼, 재떨이 등까지 디자인하였다.

이 호텔의 로비를 위하여 디자인 된 스완과 에그는 건축물의 인테리어에서 표현되고 있는 수직과 수평선의 대비를 이루기 위한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날개를 바깥으로 편 새의 형태를 따 의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스완 의

자의 20년대 말 그의 가구에서 나타났던 형태적 특징과 연관성이 있다. 처음에는 스티로폴로 성형하고 너도밤나무를 접목한 베이스로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폴리우레탄으로 성형한 뒤 유리섬유로 표면을 마감한 후 직물이나 가죽으로 씌워져 제작하고 있다. 스완 의자와 같은 기법으로 제작되는 에그 의자는 실내 공간 안에서 의자에 앉음으로 인해 개인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의 팔걸이 소파에 비해 높은 등받이로 되어있으나 무게는 7kg으로 그다지 무거운 편은 아니다. 이 두 의자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등받이 좌판 팔걸이를 하나로 연결하여 얻어지는 형태의 유기적인 특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한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 유기적 형태는 모던 클래식이라 칭해지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사진 3. 스완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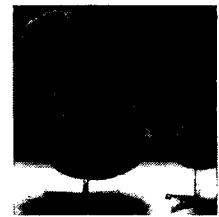


사진 4. 에그 의자

3.4 성 캐서린 대학(1960-1963)과 옥스퍼드 의자

영국의 옥스퍼드에 위치한 성 캐서린 학교는 건축가에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영국 대학의 모습이 연출될 것과 건물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기를 원했다. 이 건물은 중앙의 커다란 마당을 중심으로 두개의 기숙사 건물이 대칭을 이루며 놓여있다.

옥스퍼드 의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구내식당의 교직원 석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종교적 엄숙함이 감도는 수직선이 강조된 높은 천장과 바닥 레벨이 높여져 있는 공간 안에 위치한 교직원 석에 놓여있는 등받이가 높은 옥스퍼드 의자는 위엄 있게 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었고 학생들용의 수평적인 벤치형 의자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초기 디자인으로는 양산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프리츠 한센에 대해 다양한 옵션으로

양산되어 옥스퍼드 의자 시리즈로 불리게 된다. 5장의 합판을 성형하여 좌판과 등받이를 만들었으며 한쪽 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즉, 의자를 정면 혹은 후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의자에 앉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이루어진 곡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의자의 형태는 건축가의 컨셉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등받이와 좌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힘을 지탱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어느 야콥슨의 의자 디자인의 특성

4.1 문화적 특성

(1) 지역적 모더니즘(Regional Modernism)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지역적 환경, 자연적 특성과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¹³⁾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다양한 디자인은 그들의 감성과 문화를 표현한다. 유럽의 북동쪽에 위치한 덴마크는 쥬트랜드(Jutland)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친 기후를 가졌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그리고 풍부한 삼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길고 어두운 겨울과 환하게 밝고 시원한 여름의 기후 또한 덴마크만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낮보다 밤이 긴 그들의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는 생활환경 속에서, 특히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덴마크 전통적 공예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디자인 철학이 내포된 수준 높은 생활용품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덴마크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인에 의한 수공예 전통이 일상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디자인의 새 물결이 늦게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덴마크에서는 근대화의 면모를 갖춘 국가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유럽의 모던 디자인 양식을 추구하였지만 이는 곧 그들 특유의 풍토와 국민성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덴

마크 디자인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어느 야콥슨은 국제주의 양식의 주요 원칙들을 덴마크의 전통적 유산과 특유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속에 도입하여 새로운 미학이 담긴 독자적 디자인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디자인은 기하학적 일정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환경 속에서 발견되는 요소의 이미지들을 자연스런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의 감촉을 최대한 추구하였고 덴마크의 인본주의적 기능주의를 내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자연의 유기체 형태를 연상시키면서 지역적이고 풍토적인 그의 개인적 성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한 모더니즘으로 승화시켜 독특한 덴마크의 지역적 모더니즘(Regional Modernism)을 주도하였다.

(2) 덴마크의 디자이너와 가구 제작자의 공동 작업 관계

어느 야콥슨이 표현하고 있는 가구의 문화적 정체성은 덴마크 가구 디자이너가 발달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가구 제작자들과 디자이너들과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덴마크의 현대가구 디자인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공예 전통에 의존했던 일상용품의 생산 과정이 기계생산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하였다.¹⁴⁾ 그리하여 수공예적인 것과 공업화의 대립으로 기술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디자이너와 가구 제작자들이 협동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다. 이 상호 보완적 관계는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가격보다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덴마크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덴마크의 가구가 다음과 같은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첫째, 철저한 장인정신의 표현

둘째,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를 중심으로 한 가구 재료에 대한 이해

셋째, 사용자를 배려하는 인간공학적 기능

넷째,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은 덴마크의 가구 디자인 배경은 아

13) Takako Murakami, 앞의 책, p12

14) 전영미, 20세기 실내 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7, p120

는 야콥슨으로 하여금 프리츠 한센과 함께 독특한 가구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고 덴마크 가구의 특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4.2 재료의 특성

(1) 성형합판

성형합판 가구(molded plywood furniture)의 성공적인 상업생산은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의 헨리 벨터(Henry Belter)가 열에 의해 휘게 한 삼차원적 합판의 이용이 있었던 185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다.¹⁵⁾ 이후 오스트리아의 토네트(The Thonet)사와 미국의 건축가 찰스와 레이 임스(Charlse & Rey Eams)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과 제작자들에 의해 증기를 이용한 합판의 곡목 성형 실험이 거듭되었다. 덴마크에서는 가구회사 프리츠 한센에 의해 아네 야콥슨의 엔트 의자를 시작으로 하여 1952년에 이 실험이 완성되게 되었고 이후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작과정의 많은 부분이 혁혁한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제는 전과정이 기계화되었다. 엔트와 세븐 의자 그리고 옥스퍼드 의자의 몸체가 성형합판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아네 야콥슨의 대표적인 의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의자들은 총 9장의 합판과 2장의 섬유를 결의 방향이 직각이 되도록 교차하여 접목시킨 후 열과 압력을 순간적으로 가하여 좌판과 등받이를 이루는 하나의 몸체를 찍어내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몸체는 총 두께 9mm로서 의자가 가져야 할 견고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2) 폴리우레탄

조각품과도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원하였던 아네 야콥슨은 새로운 소재인 스티로폴을 이용하여 스완과 에그의 몸체를 디자인하였다. 이후 스티로폴은 폴리우레탄으로 대체되었고 이 위에 유리섬유로 표면을 마감하여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의자의 실루엣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폴리우레탄의 개발로 인하여 아네 야콥슨은 소파가 지녀야 할 안락함을 위해 재료가 가져야 할

쿠션성의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3) 스틸 파이프

스틸 파이프에 대한 의자의 구조적 적용가능성 연구 및 제작은 1920년대에 월터 그로피우스로부터 시작하여 마르셀 브로이어와 미스 반데로헤, 그리고 르 꼬르뷔제에 이어졌다. 이 중 특히 마르셀 브로이어는 스틸을 이용한 캔틸레버 구조를 의자에 도입하여 기존의 가구의 재료와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독일의 중심으로 한 건축가들이 스틸 파이프를 이용한 가구 디자인에 심취하고 있을 무렵 이들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아네 야콥슨은 부분적으로 스틸 파이프를 의자의 구조에 도입하게 된다. 즉, 성형합판으로 이루어진 몸체를 받치는 다리 부분이다. 현재 아네 야콥슨의 엔트와 세븐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스틸 파이프 다리는 지름이 총 12mm이며 파이프의 벽 두께는 2mm에 불과하다. 4개의 다리는 각각 2개씩 쌍을 이루며 프라스틱으로 된 고정판에 의해 좌판의 바닥 면과 만나게 된다

4.3 형태적 특성

(1) 유기적 형태의 단순성

덴마크의 지역적 미학에 바탕을 두었던 아네 야콥슨은 그의 디자인에 자유곡선과 유기적 형태를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재료 사용의 최소화, 합리적인 구조의 개념, 대량생산을 위한 단순함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의 가구가 유기적 형태이면서 단순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에 대한 아네 야콥슨의 해석이다. 그에게 있어 가구란 공간의 일부분으로써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품이다. 단순한 디자인이야말로 다양한 공간 속에서 사용자에게 의해 응용될 수 있다.

둘째, 가구를 소유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다. 가구란 그 형태가 단순하여 세월의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때 오랫동안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에 대한 해석

15) 신흥경, 현대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p191

이다. 각기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라의 공간에 놓일 수 있는 디자인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2) 쌓을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한 의자가 쌓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덴마크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쌓여 있는 모양자체도 그 의자 디자인의 영역중의 하나라고 인식된다. 쌓을 수 있는 가구가 가지는 공간 내에서의 융통성과 수출과 운반에 대한 용이함은 덴마크에서 양산되는 대부분의 의자가 쌓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

아는 야콥슨의 의자에 대한 디자인 철학은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의자가 가지는 형태의 완벽함이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추후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욕구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즉, 세븐 의자의 경우 기본형 외에도 팔걸이가 있는 형태, 몸체를 받치는 다리가 하나로 이루어져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 등으로 변형 양산이 가능하였다. 변형의 형태가 가장 다양한 의자는 옥스퍼드 의자로서 등받이의 높이나 받침대의 종류 등 총 16가지의 버전으로 변형양산이 가능하다.

(4) 인체공학적 형태

1917년 덴마크의 케어 클린트(Karre Klint)에 의해 적용되어진 인체를 위한 디자인은 1945년 이후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상호관계를 설정한 인간공학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신체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의 가능성을 의자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⁶⁾ 케어 클린트의 인간공학적 디자인은 덴마크 모던 디자인의 제보를 따라 아는 야콥슨으로 이어졌다. 즉, 폴 헤닝슨(1894-1967), 폴 켈홀름(1929-1980), 보르게 모은슨(1914-1972), 핀 울(1912-1989), 한스 위너(1914-?), 그리고 아는 야콥슨이 그들이다. 한스 위너는 "의자는 누군가가 앉

기 전에는 의자가 아니다"라는 말로서 의자의 인간공학적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을 배경으로 한 아는 야콥슨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 단순한 유기적 형태의 가구를 디자인함으로써 인간의 신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의 가구를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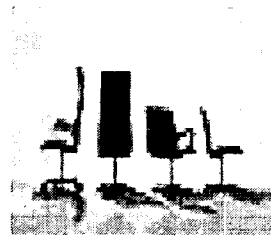


사진5.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세븐 의자의 예



사진6.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옥스퍼드 시리즈의 예

5. 결 론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의 가구 디자인은 새로운 재료의 활용과 생산 기술의 발달, 그리고 대중 소비주의의 확대로 발전되었다. 유기적인 스타일의 모더니즘이 상업화, 국제화되었고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재료와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탄생된 덴마크 가구는 수준 높은 디자인과 세월에 민감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특별한 친밀감을 주어 왔다. 이와 같은 독특한 덴마크의 디자인 환경을 배경으로 한 아는 야콥슨은 자신의 자연적 환경의 경험을 반영한 형태 추구하고 가구의 전통적 재료의 적절한 사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독특한 자신의

16) 신홍경, 앞의 글, p185

가구 디자인 스타일을 정립하였고 또 그것을 국제화시켰다. 그는 항상 자신이 창출한 공간에 적합한 가구를 디자인하였던 반면 그의 가구는 일상에서 어디서나 사용되어지는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한 그의 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특성

① 덴마크 지역환경의 미학이 표현된 지역적 모더니즘 추구

② 전통적 기술의 장인들과 디자이너들의 공동작업 관계

둘째, 재료의 특성

① 등받이와 좌판이 일체가 되어 나타나는 곡목합판의 견고함과 유연성

② 등받이와 좌판, 팔걸이가 일체로 폴리우레탄으로써 성형 되어 보여준 조각과 같은 조형미

③ 몸체를 받치는 다리부분에 사용되었던 스틸 파이프의 부분적 도입

셋째, 형태의 특성

① 자연의 영향을 받은 유기체적 형태의 단순함

② 공간 내의 융통성과 편리함을 주는 쌓을 수 있는 의자

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변형모델

④ 인간의 신체를 위한 용기로써의 형태추구

가구는 풍토, 기후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수용하는 인위적인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외국의 디자인을 수용하여 약간의 변형이나 복제한 가구들이 한국 가구시장을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자이너의 창조력과 생활 속의 문화의식을 일치시켜 우리의 가구 디자인을 발전, 정착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이연숙, 현대가구의 역사, 경춘사, 1993
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7
3. 이현정, 현대의자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일대학교 석논, 1997
4. 신흥경, 현대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 13 호, 1997
5. 민찬홍, 김혜원, 1990년대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 21호, 1999
6. 민찬홍, 민혜원, 20세기 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근대화배경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 24호, 2000
7. Sieck, Frederik, Contemporary Danish Furniture Design, 1990
8. Takako Murakami, The Background of Modern Danish Furniture Design, Danish Chairs, 2nd ed., Korinsa press & Co., Ltd, Kyoto, 1996
9. Henriken, Baard, Arne Jacobsen and his laminated chairs,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7, 1997
10. Kevin Davies, Twentieth Century Danish Furniture Design and the English Vernacular Tradition,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7, 1997
11. Merete Chritensen, Cultural Values and Tangible Forms, Scandinavian Journal of Design History, 7 1997
12. Poul Erik Tojner & Kjeld Vindum, Arne Jacobsen ; architect & designer, The Danish Design Center ,Copenhagen, 1998
13. www. ddc. dk
14. www. fritzhanzen. com